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3호 [루체 제 25852호] 주제 106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반만년역사의 속원을 이루며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장엄한 피성으로 우리 인민의 신심과 환희, 사회주의강대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우주만리에 닿고 우리 조국의 역센 위상은 장엄무쌍한 백두산의 모습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지연군위원회 위원장 양명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장장중한 뒤편에 백설을 흘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영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고 찾아오신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백두산은 눈보라치는 12월에 아직 그 누구도 올라와보지 못한 백두산정점에까지 오르신 그이앞에 만년강설을 이고 솟아있는 송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며 엄동설한에 성산이



사적비와 교양마당을 혁명의 성산의 품격에 어울리게 더 잘 꾸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권령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글밭을 어는데, 어디서 보아도 가장 잘 보일수 있도록 무게 있고 정중하게 더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을 찾아오는 답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두역 주변에 답사자려판을 새로 잘 건설하며 백두산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러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을 할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들도 잘 꾸며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에는 이 땅에 들어오는 온갖 역풍을 백두산바람으로 산산이 부서버리고 력사의 흐름을 정의와 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생겨 처음 보는 류달리 쾌청한 날씨를 펼치었다.

위대한 조선의 《11월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신 그이를 우러러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린다는 천지의 호신도 천기를 다스리시는 최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감격을 간직하듯 겨울처럼 맑고 푸른 물결에 기쁨으로 영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군님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억념 드리지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장공을 지뵈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과 눈부시게 아득한 전리수해를 이듬으로 정경계 바라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올라와보았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 봄날에도 보기 드문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어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듯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쁨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천출위원의 송엄한 빛깔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언제나 백전백승의 의지를 안겨주며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신을 키워주는 기적과 행운의 성산 백두산에는 무한한 탄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오늘 승리로 우리 혁명을 역세게 이끌어오신 천하제일명장의 천실적기상이 뜨겁게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여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봉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

따라 나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최열이 끓어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눈부신 조선의 미래가 빛받치고있었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철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천년달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새기신 뜻깊은 자국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용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퍼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린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현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당장도 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지연군위원회 위원장 양명철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참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정성사업에 총력의 마음을 다 바쳐 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영웅정년려전의 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새로 개건한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의 연건축면적은 2,700여㎡이며 종합강의실, 학습실, 자료봉사실, 영사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9년 3월 당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었던 이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에서는 전국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개건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의 관리운영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사상의 제일장자, 당정책관철의 제일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서



216사단안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꽃가역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건축면적 5,280여㎡이고 대기홀, 표과는곳, 간이매대, 도서매대, 기념품상점, 식당, 생활음료점, 커피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3층으로 된 삼지연청년역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게 표과지붕을 띄우고 일떠선 삼지연청년역의 결도양이 멋있다고, 설계를 잘했다고, 한쪽의 그림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없이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역사안의 1층 중앙홀에서 2층 대기홀까지 계단승강기를 놓았으며 휠차시간을 실시간으로 불수 있게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하였고 신 미학성, 선 권리성이 구현된 여러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꾸며놓았을뿐만아니라 약용은 지붕을 띄워놓아 객들이 눈비를 맞지 않게 해놓았는데 삼지연군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앙홀, 표과는곳, 대기실, 도서매대, 간이매대, 식사실, 생활음료점 등이 꾸려졌고 3층으로 된 삼지연꽃가역도 돌아보시며 지대적특성에 어울리고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진 역사안과 지붕을 띄운 역홀이 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봉사 수준에서 천만의 보장을 할 수 있게 꾸려졌다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꽃가역을 꾸리면서 당의 의도대로 건물들에 대한 마감을 이 지방에 흔한 부식나 나무같은 지방건축을 가지고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시공을 잘하였다고, 마감재의 국산화비율을 높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꽃가역을 유치깊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의 판문답게 현대적이면서도 산간지대의 멋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비롯하여 모든 요소소속을 완벽하게 꾸리고 내외부시공을 더욱 단정히 진행하며 다음에 혁명전적지탐사를 시작하는것과 동시에 운영을 진행할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해산-삼지연철길주변의 철거세대살림집과 새로 짓는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데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혁명역사도목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혁명역사가 종합체계화되어있는 혁명역사도목을 학습하는 과정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애민의 력사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고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운영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철히 유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읍서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2,020여㎡이며 2층으로 된 삼지연읍서관은 수십개의 호실, 식사실, 상점, 오락실, 사진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9년 7월에 몸소 다녀가신 호실을 비롯하여 떠편의 어퍼움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읍서관은 전국각지에서 혁명의 성지를 찾

아오는 답사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리용하는 곳이므로 삼지연군의 얼굴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활동에서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봉사자들의 봉사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파시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떠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총부이라는 자각을 안고 손님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분발하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읍종합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층으로 된 종합상점의 연건축면적은 1,490여㎡이며 일용품매대, 가정용품매대, 식료품매대, 직물매대, 신발매대, 견제매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979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삼지연읍종합상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상점의 매장마다에 우리가 만든 가치수가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가득차있다고 하시면서 상품전열은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봉사활동의 친절성, 편리성,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상품전열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더 잘 갖추어놓음으로써 상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호와 요구

에 맞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업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심도있게 진행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을 깨끗하면서 도 아담하게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살게 될 주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자들이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살림집들을 건설했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의도가 반영된 살림집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군내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꽃가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꾸리기와 관련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해산-삼지연철길공사를 선포하시고 철길과 철도역들에 대한 설계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형성과 자체보장대책도 몸소 세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철도역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봉사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 데 자신들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람들이 철도역과 객차별차이용실들을 바로 지킴으로써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철도수송은 역에서 시작되고 역에서 끝나는 것만큼 역시설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관건적고리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철도역들의 현대화, 자동화수준을 더욱 높여 무사고철차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철도역과 철길주변을 잘 꾸리고 정상보수, 정상유지, 정상관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

에게 우리 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총계획모형사관을 보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세계가 보란듯이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는 그 목적과 의의가 더없이 숭고할뿐만 아니라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창한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적고향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잠도리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 것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여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물지붕이나 교체하고 벽체를 끊어내어 외장재나 칠하는 땀때기식이 아니라 이왕 땀을 들일바치고는 개선보수라는 편점을 짝 털어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안고 달려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면시키려면 설계형성안에서부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에 맞게 산골군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대상의 용도에 맞으며 류사성과 반복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설계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공리를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설계자들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책임지는 림장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형성안을 경제적으로파괴성을 잘 타산하여 만들어야 하며 하나하나의 대상을 깊이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심중하게 설계하여야 노력과 자재, 시간을 낭비하는 현상을 없앨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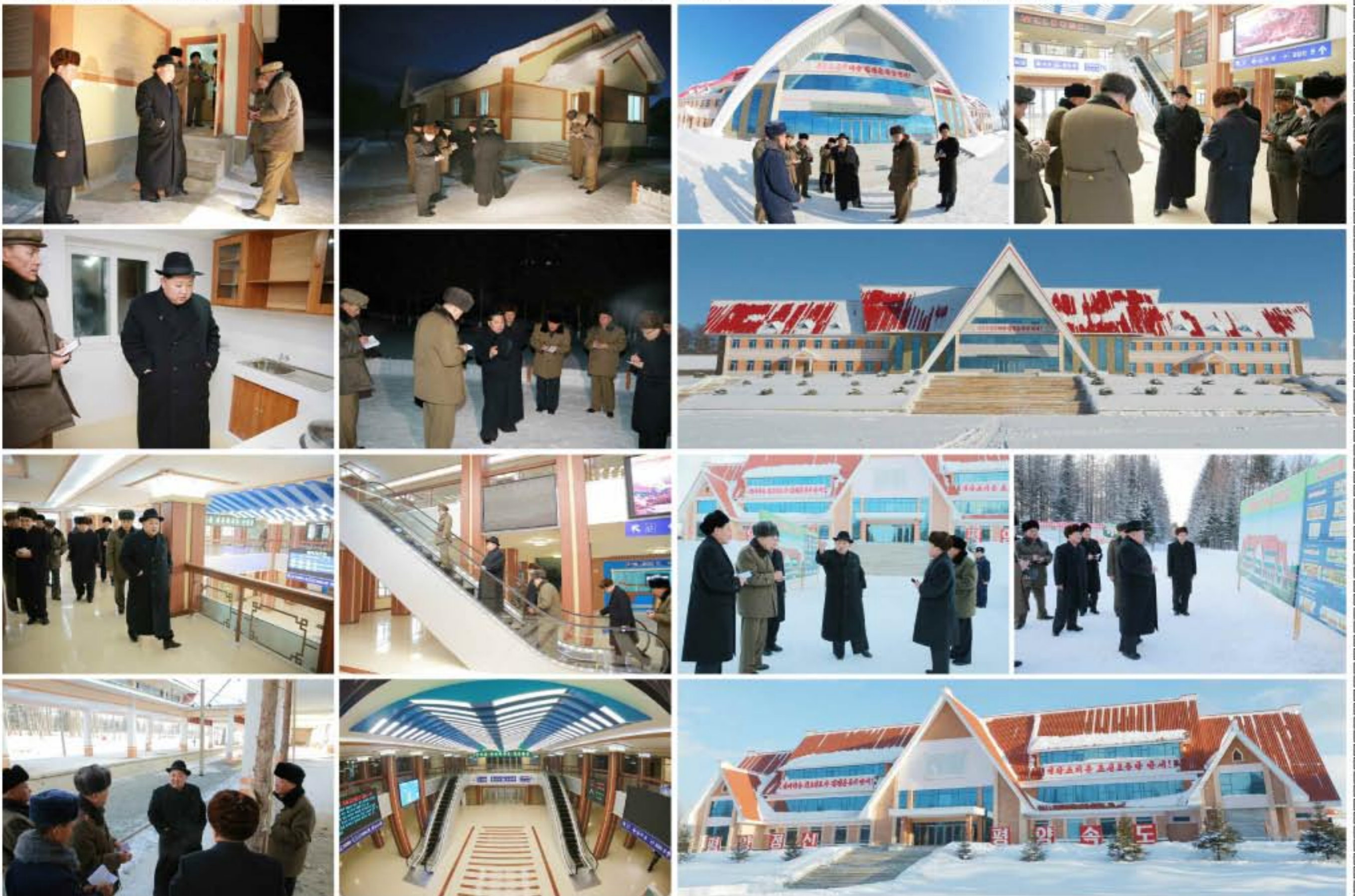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인 일꾼들은 삼지연군꾸리기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조직자적수완과 사업능력이 뚜렷이 표현된다는 자각을 새겨안고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

업을 가속화하는 승승기가 되고 기수가 되어 군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일꾼들이 자재보장대책이나 세우고 총화평가사업이나 하는것으로 삼지연군꾸리기 사업을 대하는것은 혁명전사의 향심에 미가 없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높은 실력을 지니고 건설물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건설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풀어주는것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선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절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막연있게,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4 면으로 계속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위대한 병전의 기치높이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돌격전에 펼쳐나선 원만한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베풀어준 우리 나라를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끓어넘치게 하고있다.

은 행성을 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불비성은 우리 당의 탁월한 명도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선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는 남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린 자랑한 패승이다.

전제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당중앙과 사상도 승경도 발경음도 같이하며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근엄과 불패의 국력을 세계안방에 당당히 면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무적인사를 보내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일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수도의 거리마다는 세계가 보듯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파갈이 돌진해나가며 침략의 원흉, 악의 본거지를 마음먹은 대로 불타당질할수 있는 전략무기개발에서 빛나는 대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을 맞이하는 환영분위기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사회주의강대국의 주인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평양체육관광장으로 부리 영웅거리, 비머거리, 풍흥대거리, 장전네거리, 영광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통일거리, 청년거리, 동대원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수십리연도에 펼쳐나와 민족의 장한 영웅들과 상봉하게 될 기쁨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평양체육관광장에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인 박광호동지, 김정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 최부일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김수길동지, 노광철동지, 리우오동지, 전광호동지, 고인호동지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승리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

자, 노동자들과 일군들에게 청년학생들이 꽃물결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국방과학전사들을 태운 배스들이 수도의 거리에 나서자 연도에서는 환영의 꽃물결이 끓어올랐다.

군중들은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을 흔들며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미래의 핵공강과 위력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총배한 승전의 날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보통문앞에 줄지어 늘어선 각계층 군중들의 축하속에 위훈자들을 태운 배스행렬이 영웅거리에 이르자 환영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들은 당이 안겨준 탄력과 배짱, 불타는 애국충정의 입념으로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의 수순에서 만들어 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과학전사들을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군중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국방과학전사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오늘의 민족사적

대승리,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만드신어 난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열을 기어이 끝장내실 단호한 의지를 지니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고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물소 총설계가, 검사대장, 정치위원이 되시어 깊은 밤, 이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확선에 계시며 우리 식의 로케트개발의 험로극경을 앞장서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과 로고속에 《3.18 혁명》, 《7.4 혁명》, 7.28의 기적적인 승리와 9월 3일의 장쾌한 수순탄축음을 비롯한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마침내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이 완성될수 있었다.

정녕 온 세계가 찬탄을 금지 못하고 적대세력들을 전멸케 하는 강력한 《화성-15》형대륙간탄도로켓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어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정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의 고귀한

결정제이다.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최강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각계층 근로자들은 꽃바다, 춤물결을 펼쳐놓았다.

최세의 원수위인을 높이 모시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공갈과 사상희악의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솟구쳐오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판판대로가 환히 열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절감하며 국방과학전사들은 환영군중을 향하여 손저어 화답하였다.

그들은 핵무력건설대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전사들에게 성공의 열쇠를 안겨주시고 애국의 넉과 열과 정을 다부여주시고도 오늘날은 이렇게 온 세상이 부림도록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배같은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지 못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 길에서 병전의 승전희성을 편이어 올려가는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자긍심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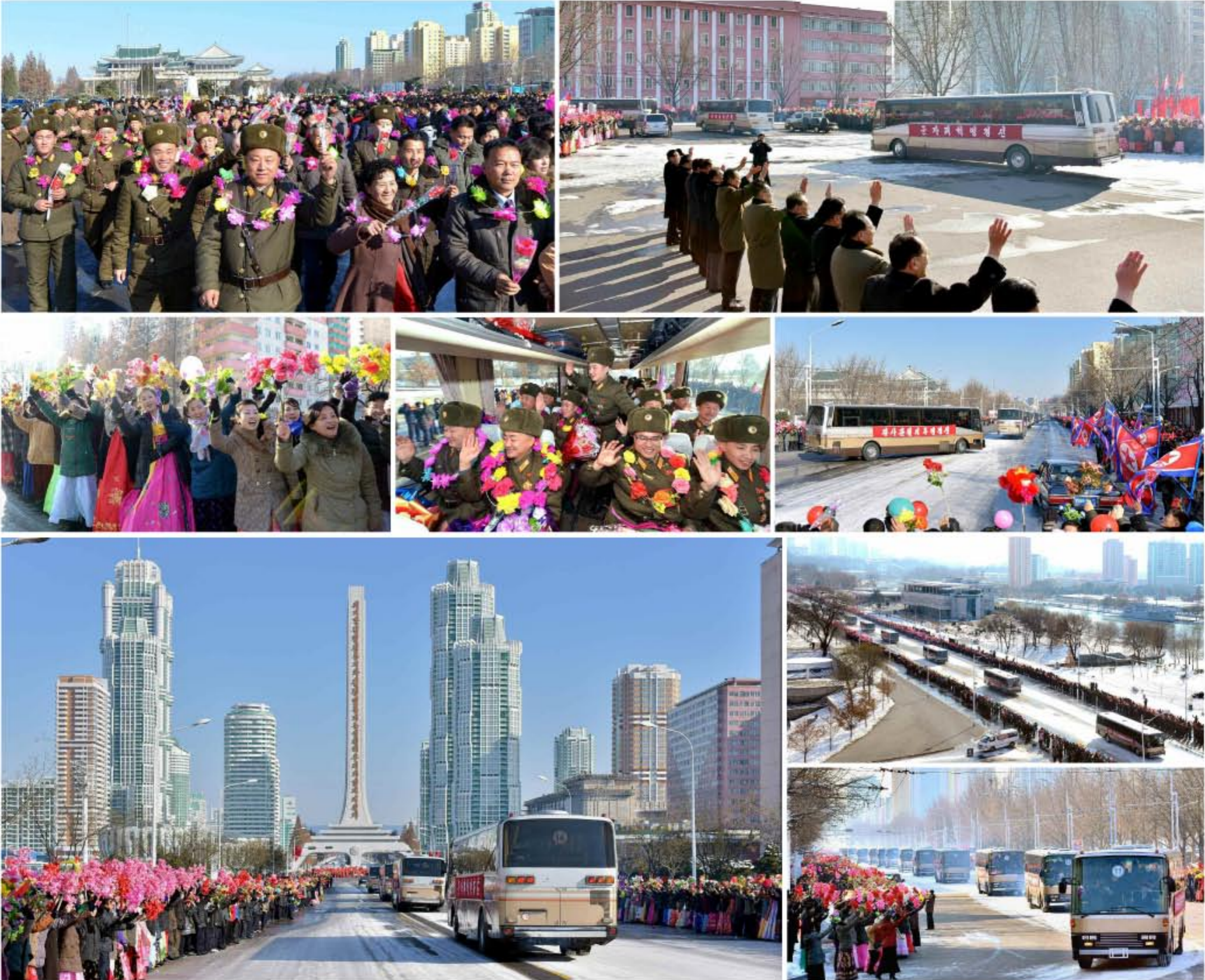
높아지는 속에 위훈자들을 태운 배스행렬은 보봉강구역, 서성구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비과거리를 지나 풍흥대거리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승엄히 우리르며 국방과학전사들은 빌터우에서 자립적 국방공명의 비전을 온몸히 닦으시고 병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오다.

축하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연도를 따라 배스행렬이 개신문을 통과하여 장전네거리에 이르자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환영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당중앙의 믿음과 정을 운명의 피줄기로, 생명선으로 베풀어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심장으로 뛰쳐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과 9축자형발사대차를 비롯한 신형전략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하고 단번성공시킨 우리의 영웅한 국방과학전사들.

6 면 으 로 계 속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5 면 에서 계 속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과시하는 위대한 대승리를 이룩한 국방과학전사들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환호소리가 연도의 곳곳마다 넘쳐났다.

과학교육의 새인 물결에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등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민족사적대승을 맞이하여 안아오는데 크게 기여한 위훈의 창조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도 국방과학전사들의 승전포성에 최담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입념을

안고 열정적으로 꽃다발을 흔들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인 승리의 기쁨에 넘쳐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시민들의 열광마다에는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봉착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군을 그 누구도 카로막을수 없다는 확신이 어찌되었다.

남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정진자립세 없는 면속공격, 면속강타를 물리대며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친 위훈자들을 태운 배스형렬은 환영의 꽃물결 설레이는 영광거리, 미제과학자거리들 지나 총성의 다리를 통과하였다.

시련의 천만고비를 완강하게 돌파하고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명이 실려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경사관철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천만의 심장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 국방과학전사들을 평천구역안의 근로자들이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총서사상이 응축된 과학기술전당과 웅장화려한 초고층살림집들을 비롯한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시민들의 진철육의 정을 가슴부듯이 새겨안으며 국방과학전사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을 전태제로 다져나갈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다.

연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하다!》, 《우리 과학자들이 제일이다!》 등 천만의 목소리가 연방 터져오르는 속에 통일거리와 청년거리에서도 위훈자들을 맞이하는 환영열기는 뜨거웠다.

막강구역, 봉대원구역 녀맹원들이 붉은

기쁨을 펼치고 선교구역안의 학생취약대들이 박력있고 기백넘친 노래들을 주악하는 가운데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 등의 손구호들과 꽃다발들을 든 군중들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연도에 날아선 청년학생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방에서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이룩해나갈 의지에 넘쳐 우렁찬 구호의 함성으로 국방과학전사들을 환영하였다.

정의의 핵보검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밀어낸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고있는 소년단원들도 위훈자들을 축하하여 두손을 흔들었다.

국방과학자들을 태운 배스형렬은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미지

막강승선을 향한 총공격전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우리 인민의 불같은 마음을 안고 환영의 거미줄을 누벼나갔다.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이여, 어머니당이 안겨준 오늘날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가득 받으시라!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이 그대로 환희의 꽃물결이 되어 끓어오르는 축하의 바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과 국가력 무력건설대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만들어버 순간의 범종도 주저도 없이 헌신적인 결사전, 공격전을 펼쳐 범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의 분출이었다.

오늘의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국방

과학전사들처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정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더욱 지세차게 일으켜 이 땅위에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담은 《승리는 대를 이어》, 《나카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등의 노래가 수도의 하늘가로 끊임없이 메아리쳐 갔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축하하여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려한 경례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자주의 기치, 자강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반드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우리 인민의 역활봉헌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로 자력갱생 대진군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가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시, 군들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지방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파시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대진군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려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순천시, 사동구역, 북상, 평천, 함주군군민련환대회장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력사적인 《11월 대사변》은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만로고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선포하는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터져오르고있다고 그들은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새형의 더복간단로고에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오시어 위대한 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펼쳐주시고 우리 조국의 창상한 억만년미래를 안겨주시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격관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에 기어올라온 변방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전제인민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 총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사용위하며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혁명의 총

대, 계급의 총대를 역세게 끌어쥐고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행한다면 신약같이 떨쳐일어나 침략자, 도발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올라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견관직을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려 민족적대사변들로 총만된 뜻깊은 열매를 빛나게 경축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마치를 역세게 끌어잡고 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펴올려 한KW의 전력을, 한의 서민이라도 더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온 국방과 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군들에 대한 열렬한 축하의 목소리들은 김책시, 라남구역, 보천, 신천, 통일군군민련환대회장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주체당이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11월 29일은 미제의 핵공갈과 위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총체적 승리의 날로 조국청사

에 한연히 아로세겨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잡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자주적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병전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직을 위한 총동원적의 발걸음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데에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계대 제1선함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일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쌀로써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만들어내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처럼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포구마다에 《이제이경》을 펼쳐놓음으로써 인민들의 식량우에 바다황기가 넘쳐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

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만제만미대결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적전장마다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성시, 부령, 봉산군군민련환대회장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오늘의 대승리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강령군길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은 한해 세상을 불었다놓은 흑대사변들을 만이여 이복하시어 전세계에 영웅조선의 역전 위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후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을 우리 인민은 세세대대 깊이 진해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방과학사들의 검사관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자력자강의 불길들이 오늘의 전진총동원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

며 결전의 시각이 오면 침략의 무리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죽창쳐버림으로써 오늘의 력사적인 승전포성을 만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를 배방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을 세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승리의 틀과구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은 한해 세상을 불었다놓은 흑대사변들을 만이여 이복하시어 전세계에 영웅조선의 역전 위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후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을 우리 인민은 세세대대 깊이 진해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방과학사들의 검사관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자력자강의 불길들이 오늘의 전진총동원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

며 결전의 시각이 오면 침략의 무리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죽창쳐버림으로써 오늘의 력사적인 승전포성을 만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를 배방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을 세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승리의 틀과구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은 한해 세상을 불었다놓은 흑대사변들을 만이여 이복하시어 전세계에 영웅조선의 역전 위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후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을 우리 인민은 세세대대 깊이 진해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방과학사들의 검사관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자력자강의 불길들이 오늘의 전진총동원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



【조선중앙통신】

